

창작의 날 50주년

백 아 수 한국예술가협회 이사장

예술인들이 만수무강한 예술적 재능을 자신이 기록해내야 한다고 평생에
필요 있는 한사람으로서 한인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술인들이
한인 간혹들이 뜻을 모아 <해위 한인 간략 50년>을 엮어 내게 된
것을 환영하고 깊이 감사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2003년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 그리고 한인간혹들에게는 감동적인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 행선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해위 한인 간략 50년의 흥취를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
이 역사책은 단지 해위 거주 한인간혹들의 의류활동의 역사만이 아닌 70년
대의 조국의 근대화와 이민사회의 한인공동체 행선에서 예술인들이
간혹들의 의류활동 기여한 업적을 집대성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 역사 기록에는 우리네가 6.25사변으로 동쪽상자의 앞문을 겪고
있던 1953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그리고
그리스 등 세계 각지로 진출한 3만여명의 한인 간혹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병원, 대학, 연극, 해위동포회, 종교계 (비시비스분야 등에서 다채로운
의류활동으로 남긴 업적과 의류활동에 투여한 값의 지혜의
정열들이 담겨져 있다. 이들을 산증인들이 후손을 양성하는 문화의 후진
들이라.

미주 한인 간혹들이 지난 50년간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돌아오는 반세기
의 길잡이가 될 50년사를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작업을 자신들이 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참한 '미주이민 100년'에서 간혹들의 삶을 온전히
은빛이 빛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된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주이민 100년사에서 우리는
이내야 한다. 단적인 예로서 '역사'라는 영어단어의 'history'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history'를 구상하기로
한다. 이러한 행선은 역사에서 많은 이내리 문화, 경제, 교육, 종교,
의류활동 등에서 등장하게 되리라 있다. 이것을 두고 사회학에서는
'문화사'이라고 하고 있다.

금번 미주 한인 간혹들이 집행을 거쳐 출판하게 되는 해위 한인
간략 50년사는 미주이민 100년 해위 지역에서의 의류활동과 또한
있고 있는 3만여명의 한인간혹들의 의류활동으로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업적을 문화사에서 한 가지의 가치로 표현하는 계기
가 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국내의 의류활동에서도 문화사에서의 의류활동의 의류
상을 자신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리라

있다. 60년대 이래 후진국의 2인치는 민족운동에서의 3박자 ^{최후의 주역이} 아들이 수반된
여성들의 활약상은 남자들이 없으면 <민족운동론>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잡지에 끌려가고 인종되고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족운동을 전개했는지를 대변자들,
아내들 그리고 수녀들의 참예한 민족운동의 주축은 지식인들이 없었기에 양호한
행위를 보게 할 수는 없다. 이렇듯 역사를 읽어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간호학으로서 이부분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대적인 간호 50년대의
출판물 출판하는 일을 해낸 것으로 인정된 일이다. 다만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보면 50년대의 출판물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되며 정말 장중한 일은
해변가에서 대해 조망하면서 읽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사학사들은 주변 50년대의 출판물을 통해 양으로 있는 대변자의 50년대의
간호사로서 보라 해로써; 그비로써 안하게 되고 크게 생애학적이 될 수 있다.
이주학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기여한 모든 이들의 정성을 기원한다
후회 없다.